

【 특 집 】

## 일제강점기 한국과 만주의 문학적 상관성 고찰\*

김 창 호\*\*

### 丨 차 례 丨

1. 들어가는 글
2. ‘鮮滿如一’ : 한반도와 만주는 하나?
3. 문학적 만남과 타자로 마주보기
4. 저항의 다양성
5. 디아스포라와 노스텔지아
6. 마무리 글

### 국문초록

이 논문은 비교문학 이론 중 역사유형학과 타자형상 이론의 시각에서 일제 강점이라는 공통된 역사적 환경에 노출된 한국과 중국 동북 지역의 문학에 대해 그 비교 가능성을 통시적 관점에서 서술한 글이다. 이 작업을 통하여 얻은 두 지역 문학의 비교유형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두 지역의 문학적 교류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 시기 두 지역에서 발생한 문학적 교류는 문학가의 접촉이나 문학작품의 상호 번역 등 직접적 교류는 적었으며, 본 민족 작품에 상대방 ‘타자’형상을 반영한 작품이 주류를 이루었다. 일제의 침략 이후 수많은 한국인들은 정치적, 혹은 경제적 이유에서 만주지방으로 이주하였는데, 이는 동북작가가 그들의 작품에 한국인을 반영한 객관적 조건이 되었다. 또한 동북으로 망명한 한국작가들은 그들의 작품에 동북, 혹은 동북의 중국인을 그들의 작품에 묘사하였다. 이른바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7-551-A00111).

\*\* 강원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시간강사

동북현대문학에는 주로 독립군, 혹은 평범한 이주민이 등장하는데, 독립군의 경우, 만주사변 이후 동북의 중국인들과 연합하여 항일투쟁을 전개하는 국제주의 전사 형상이 등장하며, 동시대 관내의 작품과 비교할 때, 인물형상이 보다 다양화되고 복잡해졌다. 한국작품의 경우 동북은 주로 지식인의 시야에 비친 동북 도시의 죄악상, 농업 이주민의 시야에 비친 희망의 땅, 혁명가의 시각에서 바라본 광복기지 등으로 묘사되고 있다.

둘째, 두 지역의 식민지문학에는 모두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저항정신을 반영하였다. 이는 다시 직접적 묘사와 간접적 묘사로 나눌 수 있다. 직접 묘사는 주로 강점 초기, 즉 아직 문화에 대한 통제가 불철저한 시기에 나타났다. 그러나 일제의 통제가 강화되고 암흑기로 접어들수록 저항문학의 대부분은 간접 묘사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작가는 당시의 암울한 사회현실을 객관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잔혹한 일제 통치를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셋째, 한국과 동북작가의 망명지는 다르지만 두 지역 망명문학에는 다음과 같은 공통의 특징이 담겨져 있다. 먼저, 두 지역 망명문학에는 모두 고향을 그리워하는 ‘향수’의식이 반영되었다. 이 ‘향수’의식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동시에 고향에 대한 냉철한 비판의식이 내포되어 있다. 아울러 망명문학에는 저항정신이 반영되어 있다. 두 지역의 망명 작가들은 일제의 잔악한 폭행을 묘사함으로써 작가 본인의 반제국주의 의식을 표출함은 물론, 이를 통하여 독자 대중들의 반일 감정을 고취시켰다.

주제어 : 비교문학, 타자형상, 역사유형학, 일제강점, 저항, 망명

## 1. 들어가는 글

본고는 일제 강점이라는 공통된 역사적 배경 아래에서 생산된 한국과 중국 동북(만주)의 문학에 대해 비교문학의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이 두 지역의 문학적 상관성을 복원하고 아울러 식민주의 체제에서 대응할 수 있는 문학가의 태도와 방식이라는 일반론을 탐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sup>1)</sup>

1) 일제 강점기 만주에서 발생한 문학에 대한 동아시아 3국의 명칭은 다르다.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제만문학으로 부르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만주국 문학이라 하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동북문학이라 칭하고 있다. 그중 중국의 경우 작가의 출신지를 원칙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만주국 시절 동북에서 창작된 문학과 함께 만주사변을 전후해서 산해관내

비교문학 연구자로서 먼저 해야 할 일은 두 민족문학 간의 비교가능성, 즉 ‘可比性’을 찾는 일이다. 20세기로 접어들면서 한국과 중국의 문학 비교는 예전과는 다른 양상을 띠게 된다. 그 이전의 두 나라 문학 비교가 주로 발신자인 중국의 문학을 수신자인 한국에서 수용하는 영향-수용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20세기 이후, 즉 근대문학<sup>2)</sup> 시기부터는 서양문학의 수용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수평적 위치에서 비교하는 주제연구가 주를 이룬다. 이를 비교문학 방법론에 비추보면 프랑스 학파가 주장하는 영향연구에서 미국 학파의 주제연구로 전환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주제연구의 한 갈래인 러시아 학파에서는 서로 다른 민족문학이라 할 지라도 유사한 역사발전 단계를 거친 민족국가 간에는 유사한 문학형태가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sup>3)</sup> 이는 한중 현대 비교문학 연구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작업이 무엇인가를 알려준다. 본고는 우리의 입장에서 근대시기 한국문학과 중국문학을 비교할 때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 무엇인가를 묻는데서 출발한다.

주지하다시피 아편전쟁 이후 중국 중심의 전통적인 동아시아 판도는 서세동점과 일본의 서방 학습으로 재편되기 시작했다. 일본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후 한반도에 대해 주변 열강으로부터의 보호와 근대화라는 명분을 앞세워 합병을 강요하였고, 다시 대륙으로 눈을 돌려 만주지역을 시작으로 중국 전역으로 확대하였다. 이는 시기적으로, 그리고 지역적으로 차이는 있으나 20세기 전반기 한국과 중국의 가장 큰 공통점이 제국주의 일본에 의해 식민주의에 노출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특히 한반도와 인접한 만주는 중국 대륙의 지역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일본에 강점되었으며,

---

로 유망한 동북출신 작가들까지도 아우르고 있다.

2) ‘근대문학’이란 용어에 대해서는 한국과 중국이 다를 뿐만 아니라 양국 학자들의 시각에 따라 다양하다. 그러나 크게 보아서 한국의 경우 19세기말이나 20세기 초부터 광복이전까지를 칭하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아편전쟁부터 5·4시기 이전까지를 근대문학, 그리고 그 이후부터 해방까지를 현대문학으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는 한국의 용법에 따르고자 한다.

3) 孫景堯 等 主編, 1997, 『比較文學』高等教育出版社, 211쪽.

당시 가장 많은 조선인들이 디아스포라의 터전으로 자리한 곳이라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지역이다.<sup>4)</sup> 다시 말해서 한국과 중국 동북이 지리적 조건에 의해 인적, 문화적 교류가 활발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그리고 일본이라는 동일한 제국주의 체제에 의해 유사한 식민주의 경험을 하였다는 점은 자연히 문학적 상관성이 많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난세에 나타나는 문학가들의 태도는 크게 다음 세 가지로 귀결할 수 있다. 한 부류는 원래 있던 자리에 남아서 문학 활동을 지속하는 자, 그리고 외세를 피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지역을 찾아 떠나는 자, 또 다른 부류는 아예 절필하는 자이다. 이를 한국문단에 적용한다면, 일제하 한반도에 남아서 저항, 혹은 친일적 경향을 보이거나, 아니면 주의사상에 휘말리지 않고 순수문학만을 고집한 작가들, 만주에서 창작하다가 절필한 김창걸과 같은 작가들, 그리고 한반도를 떠나 만주나 일본 등지로 망명이나 이주, 혹은 유랑의 형태로 머물면서 창작활동을 전개한 문인들이 있다. 물론 이들 떠난 작가들이 가장 많이 머문 곳은 한반도와 연결한 만주지역이다.

만주 공간은 한국문학에 있어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작가론의 측면에서 볼 때 구한말의 지식인을 제외하더라도 약 130여명의 문인들이 이주, 혹은 유랑과 여행 등을 통하여 만주를 체험하였다. 일제 강점기 가장 많은 문인들이 활동한 곳일 뿐만 아니라 또한 200여 편의 작품이 만주 공간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이들 작품에는 당시 조선인뿐만 아니라 조선인과 관계하는 중국인에 대한 묘사도 함께 그리고 있다. 이는 동북의 경우도 비슷하다. 그곳 또한 저항과 협력이라는 식민주의 문학의 일반적 특징이외에 한국과 마찬가지로 망명문학자가 다수 발생했으며, 동북으로 이주한 조선인을 직접 체험하면서 자연스럽게 그의 작품에 조선인 타자를 형상화하였다.

4) 그러나 해방이후 지금까지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만주는 우리에게 한동안 잊혀진 곳이였다. 얼마 전부터 ‘동북공정’이 국가적 화두로 등장하면서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으나 중국에 대한 우리의 시선은 주로 베이징, 상하이 등 황해 연안의 대도시로 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한국에서의 중국현대문학에도 연구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 문학적 상관성의 객관적 토대가 되는 한반도와 만주의 관계성에 대해 살펴본 후 두 지역 문학의 비교 가능성, 즉 일제 침략이라는 공통적 역사상황 하에서 전개된 한국문학과 중국동북문학에 대해 남은 자의 문학비교, 떠난 자의 문학비교, 그리고 자국의 문학작품에 투영된 상대방 타자형상비교를 중심으로 각각 어떠한 동질성과 차이점이 있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 2. ‘鮮滿如一’ : 한반도와 만주는 하나?

지금 우리에게 만주는 휴전선과 북한지역, 그리고 또 북중국경이라는 3중의 인위적 장벽으로 인해 심적 거리가 멀게만 느껴지지만, 근대까지만 해도 만주는 한반도와 통행이 자유로운 가까운 곳이었다. 한반도가 반도인 까닭도 만주와 연결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리적 환경으로 인해 한반도와 만주는 유사 이래 하나의 역사의 장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 고대 만주는 고조선·고구려 등 북방으로 중심으로 탄생한 우리 민족의 활동 지대였다. 이들은 만주에서 발흥한 숙신·거란·여진 등 다른 여러 민족들과 협력, 혹은 경쟁하면서 다방면에 걸쳐 관계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청을 세운 만주족이 조선을 침략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만주는 한반도에 끊임없이 전운을 몰고 온 화근의 온상이자 시련의 원천이 되기도 하였다. 또한 한중관계사에 있어서는 한반도와 대륙을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하였거나, 때로는 대륙과 반도 및 해양세력 사이의 충돌을 완화시켜 주는 완충작용을 하기도 하였다.<sup>5)</sup>

한반도와 만주의 관계성은 근대에 이르러 동북아 변혁의 핵으로 등장하면서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변하였다. 아편전쟁 이후 휘청거리면서도 동북아에 대한 기득권을 고수하려는 중국과 서방의 제국주의를 학습하면서 이

5) 고구려연구재단 편, 2005, 『만주 그 땅, 사람 그리고 역사』, 19쪽.

웃으로 팽창하려는 일본, 그리고 거기다가 부동항을 남하하려는 러시아까지 가세하여 동아시아의 각축장으로 변모하였다.<sup>6)</sup> 그러나 이러한 헤게모니 싸움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통해서 일단락되었다. 이 두 전쟁의 승자인 일본은 한반도와 남만주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확보하면서 국내적으로는 명치시대부터 주장해온 ‘脫亞入歐’와 ‘동아시아의 영국’ 건설이라는 제국주의 심상지리를 현실화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갔다.<sup>7)</sup>

한편, 일본에 의한 동아시아 질서의 재편은 한반도와 만주의 관계사에 특수한 의미를 부여한다. 다시 말해서 20세기 전반기 이전과 그 이후의 관계가 적어도 두 지역에서 발생한 주체가 대립과 갈등, 혹은 협력 속에서 진행된 반면, 이 시기의 관계망은 일본 제국주의라는 제3의 권력의 개입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20세기 초 ‘內鮮一體’를 앞세워 한반도를 식민지화한 일본은 대공황 이후 만주까지를 생명선으로 여기면서 만주사변(1931)을 일으키고 한반도와 만주를 동일시하려는 ‘鮮滿如一’ 정책을 실시하였다. 일본은 ‘식민은 문명의 전파’라는 인식과 일본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일본을 정점으로 한 동화정책, 즉 일본(內地) - 조선 - 만주를 연결하는 제국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sup>8)</sup>

한반도와 만주를 하나의 블록으로 묶으려는 구체적인 작업은 먼저 산업과 경제 분야에서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한반도에 대한 경제 수탈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경인선과 경부선, 그리고

6) 이러한 의미에서 일본의 제국주의적 팽창의 가장 큰 특징은 상항의 산물이라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서양과의 연관 속에서 형성, 추진된 현상이며, 시기적으로도 일본의 근대 국가 형성과 제국주의 시대가 맞아 떨어졌다는 상황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동시에 동아시아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중국이 이 때 몰락하게 되면서 일본이 그 공백을 메우기가 쉬웠다는 상황도 중요하였다. 박지향, 2003, 『제국주의』, 서울대학교, 272쪽.

7) 후쿠자와 유키치로 대표되는 ‘탈아입구’론과 유럽에서 영국이 행한 의무를 자신들이 동아시아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믿는 ‘동아시아의 영국’ 인식은 일본의 오리엔탈리즘이 처음부터 이율배반적 지향성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열등한 아시아’라는 의식에 괴로워하면서 동시에 ‘아시아를 갈보는’ 우월감을 팽창시킴으로써 국가의 위세를 인접 아시아 국가에 심고자 했던 일본의 국가정책은 아시아에 대한 지정학적인 헤게모니의 확립으로 돌진해 갔다. 위의 책, 273~274쪽.

8) 강상중 지음, 이경덕·임성모 옮김, 2004,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 이산, 102~103쪽 참조.

경의선을 건설한 일본은 이를 만주지역까지 확장하고자 러일전쟁 직후인 1906년 만주철도주식회사(‘만철’로 약칭함)를 설립하였다. 이는 단순한 철도망의 확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만철의 건설은 농경지의 침탈과 함께 만주의 중요 산업을 지배하는 중심점이 되었으며, 철도 인접지역에 ‘부속지’를 점령함으로써 영토 확장의 침범 구실을 하였다. 1909년에는 조선은행 대련 분점을 시작으로 1920년 만주전역에 17개의 분점을 구축하여 일본 엔블록화에 앞장세웠다. 또한 만주의 자원으로 군수물자를 충당하기 위하여 나진과 청진 등 함경도 북부 해안에 항구를 신축하였으며,<sup>9)</sup> 1937년에는 조선과 만주국에 동시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당시 동북아 최대 규모인 수풍댐을 건설하였다.

근대시기 우리 민족에 있어 만주 공간은 망명과 이주 유랑의 무대였다. 해방이전 반백년의 한민족 이주사를 통해서 만주행을 택한 조선인은 당시 한반도 인구 2,500만 명의 1/12에 해당하는 210만 명으로 오늘날 재중동포의 수와 비슷한 수치이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만주행을 선택했을까? 일반적으로 유이민사의 연구는 유이민의 발생원인과 이동대상, 이동지역을 선택한 원인, 그리고 정착과정 등을 밝히고 있다. 일반적으로 유이민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서는 사회적 변동을 꼽는다. 여기에는 홍수와 가뭄 등 자연적인 요소도 있지만 전쟁 발발, 지역이나 국가 사이의 경제 편차 등 인위적 원인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근현대시기에 진행된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역사를 보면 이민 초기인 19세기 중엽부터 말까지는 자연적 재해가 주요 원인이었다면, 20세기 초기에는 일본 제국주의 침략이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 또한 고향은 떠난 유이민들은 지리적 조건 때문에 이동하기 쉬운 지역을 목적지로 삼는다. 이는 근대 한민족이 디아스포라를 시작하면서 그 대상지를 만주로 정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9) 이 시기 심양에서 간행된 『盛京時報』를 통해 이들 항구들이 만주국에서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1935년 10월 17일자에 나진항의 완공 소식이 게재되었으며, 같은 해 10월 19일자에는 ‘北鮮三港, 淸津, 雄基, 羅津之現況’이라는 기사와 11월 11일, 12일자에는 ‘東滿之關門, 羅津港現況’(二),(三)이 연재되었다.

1860년대 함경도 지방의 가뭄과 기근으로 두만강을 건너가 조월석귀나 춘경추수를 하면서 북간도를 개척하기 시작한 것이 근대 만주이주사의 시작이다.<sup>10)</sup> 그러나 본격적인 이민은 일제 강점이 노골화된 20세기 벽두부터 진행되었다. 일제의 침략과 수탈로 수많은 애국지사, 지식인, 농민들은 오랜 삶의 터전인 고향을 떠나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까운 중국으로 탈출하였다. 특히 만주는 한반도와 연접해 있다는 지리적 조건, 일찍이 우리 선조들의 활동 무대였다는 민족의식, 그리고 이미 19세기 중엽부터 형성된 한인 정착촌을 중심으로 항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현실인식으로 한민족 디아스포라 최대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지금까지 근대시기를 중심으로 한반도와 만주의 관계에 대해 조망해 보았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이 두 지역은 시간적 차이는 있으나 일본 제국주의에 공통적으로 노출되었고, 인위적으로 하나의 블록으로 연결되었으며, 또한 수많은 한인과 다수의 한인작가가 이주하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이 긴밀하게 연결된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문학적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문학적 유사성은 어떻게 표출되었는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 3. 문학적 만남과 타자로 마주보기

일제강점기 한반도와 동북의 문학비교에서 첫 번째로 고찰하고자 하는

10) 만주 이민사에 대한 시기구분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지만 크게 다음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19세기 중엽부터 1919년 3·1운동까지이고, 두 번째 시기는 1919년부터 만주사변까지로 이 시기는 주로 항일을 위한 정치적 목적과 농토수탈로 인한 경제적 원인으로 이주한 시기이다. 세 번째 시기는 만주사변부터 광복까지로 이 시기에는 자발적 이주도 있었으나 대동아 전쟁의 병참기지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이주가 주를 이루었다. 한민족 만주이주에 대해서는 김기훈, 2008, 『만주의 코리안 디아스포라』; 한석정·노기식 편, 『만주, 동아시아 융합의 공간』; 고구려연구재단 편, 2005, 『만주 그 땅, 사람 그리고 역사』 등을 참고할 것.

것은 두 지역 문학의 만남에 관해서이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두 가지이 될 수 있는데, 하나는 직접적으로 어떤 교류가 있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며, 다른 하나는 상대방 타자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았는가를 논하고자 한다. 이는 따로 떨어진 객체로서가 아니라 두 지역 문학의 만남, 혹은 어느 한 지역에서 생산된 문학 속에 투영된 ‘나’와 만나는 ‘너’에 대해서 비교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한반도와 동북이 일제에 의해 운명공동체가 되었다는 객관적 사실만을 놓고 볼 때 두 지역의 문학적 교류 또한 상당히 많았을 것이라는 선입관을 가질 수도 있지만 당시 두 지역의 문학인들의 만남이나 작품의 교류 등은 아주 드물었다. 1940년 8월 5일자 「대동보」에 실린 아래와 같은 평론은 이를 잘 대변해 준다.

이전에 우리는 조선의 문화세계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 민족 가운데는 시인이나 작가가 한 사람도 나타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마치 러시아 문학의 위대한 빛을 발견하기 전에 사람들이 러시아에 것처럼 찬란한 문화가 있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것과 같다. 조선, 더욱이는 조선의 문화는 사람들에게 흡시되어 있는 지 오래였다.

이 글은 조선의 문화에 대해서 당시 중국인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동시에 두 지역의 문학교류가 얼마나 소원했는지 대변해주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 몇 가지로 귀결할 수 있다. 첫째 두 지역은 하나의 운명공동체에 있었으나 상호 왕래에 대해 철저히 통제하였다. ‘내선일체’와 ‘선만여일’로 표면적으로는 일본열도와 한반도, 만주가 하나의 공동체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일본열도에서 총독부와 관동군사령부를 통해서 두 지역을 각각 조정할 뿐 두 지역의 항일세력이 합심하는 것을 두려워한 일제는 조선과 만주의 직접적 교류는 통제하였다. 다만, 「만선일보」에서 활동했던 재만작가 안수길의 경우 당시 만주국의 친일적 종합잡지의 편집장인 吳瑛부부와의 만남이 있었으며<sup>11)</sup>, ‘문학을 통하여 대동아전쟁을 완수

하자'는 대동아문학자 대회를 통하여 이광수, 유진오 등 조선대표 5명과 吳瑛, 古丁 등 만주국 대표 5명의 만남이 있었을 뿐이다.<sup>12)</sup>

둘째 두 민족의 언어가 달랐기 때문이다. 상기 인용문은 만주국에서 한국 문학을 번역 소개한 유일한 단행본인 『조선단편소설선』<sup>13)</sup>을 평한 머리말이다. 1941년 7월 4일에 신경(장춘)의 新時代社에서 출판된 이 단행본에는 김동인의 『붉은 산』, 이효석의 『돈』, 이광수의 『가실』 등 모두 8편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일본에서 출판된 『朝鮮文學選集』,<sup>14)</sup> 『朝鮮小說代表作集』,<sup>15)</sup> 『半島作家新人集』<sup>16)</sup> 등에서 선별하여 중국어로 재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번역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대표성에도 문제가 있지만 같은 피압박 지역에 대한 관심의 일환으로 소개한 것은 나름의 가치를 지닌다. 이보다 앞서 作風刊行會에서 발행한 동인지 『作風』 창간호 「譯文特輯」(1940. 11)에 러시아, 불가리아 등 주로 피압박 국가의 작품과 함께 이광수의 「가실」, 이효석의 「돈」, 김동인의 「붉은 산」을 소개한 것이 있으나 이들 작품은 후에 단편소설집에 재수록 되었기 때문에 다른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다르게 만주국의 중국어작품이 한국어로 번역된 작품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이유는 노신 등 당시 중국의 일반적인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조선에 대한 인식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중국의 지식들은 위의 인용문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조선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려 하지 않았다. 오래전부터 조선은 자신들의 속국이라는 의식 때문에 같은 피압박민족이라고 하더라도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에 대해서 보인 관심과는 차이가 있다. 한국의 지식인들의 경우 만주문학에 대한 관심보다는 관내의 주류문학에 집중하였다. 재만작가인 안수길의 경우 같은 만주 공간에서 활동하였으나 만주에서 번역한 작품은 노신의 『고향』이 유일

11) 김윤식, 1986, 『안수길 연구』, 정음사.

12) 임종국, 1966, 『친일문학론』, 평화출판사.

13) 作風刊行會 編.

14) 赤塚書房, 1940. 3.

15) 教材社, 1940. 2.

16) 週刊朝日, 1941. 5.

하다. 다시 말해서 중국 문인들은 조선을 변방으로 여겨 소홀히 하였다면, 한국문인들은 만주문학을 주변문화로 경시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두 지역의 문학교류가 소원할 수밖에 없는 세 번째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국문학과 동북문학의 상호 만남은 문학 객체의 상호연관성에서 찾기보다는 한 민족문학에 나타난 상대방 이미지에 대해서 비교 고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시 말해서 한국문학에는 만주, 혹은 만주의 중국인이 어떻게 묘사되었고, 동북작가들은 자신의 작품에 한국, 혹은 한국인을 어떻게 투영시켰는지를 비교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발굴된 자료에 의하면, 한국근대 소설 중에서 중국을 배경으로 한 작품은 230여 편인데 그중 200편 정도가 만주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sup>17)</sup> 중국현대문학작품 중에는 한국인이 투영된 작품이 모두 34편이 있는데, 그중 관내작가가 창작한 18편을 제외하면 모두 동북출신 작가가 쓴 작품으로, 이들 작품들 역시 만주라는 공간적 배경을 하고 있다.<sup>18)</sup> 물론 이러한 작품배경의 동질성은 한민족 이주라는 사회적 현상에서 기인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19세기 중엽이후 광복 전까지 기근과 일제의 침략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만주로 이주한 조선인은 당시 조선 총 인구의 1/12에 해당하는 약 210만이고, 137명의 작가들이 만주를 체험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문학에도 영향을 주어 동북작가는 만주로 이주한 조선인을 자신의 작품에 투영시켰으며, 만주를 체험한 한국작가들은 중국인을 투영시켰다.

그렇다면 이들 작품에 투영된 타자의 형상은 어떤 모습일까? 이를 위해 먼저 비교문학 이론에서의 타자형상 분석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1990년대 초 프랑스 학계에서는 비교문학의 새로운 이론으로 한 민족 문학에 투영된

17) 중국을 배경으로 한 한국소설 작품 수에 관해서는 표인복, 2004, 『해방전 중국 유이민소설 연구』를 참고하였음.

18) 이 방면에 관해서는 적지 않은 선행연구가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박재우는 「中國現代韓人題材小說發展趨勢考(1917~1949)」, 『외국문학연구』3을 발표한 이래 동북작가를 포함한 중국현대문학 작품에 투영된 한국인 형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해왔으며, 김시준은 『한반도와 중국동북 3성의 역사문화』에서 동북작가를 중심으로 고찰한 바 있다. 그러나 기존에 발표된 이들 논문들은 주제적 시각으로 외국문학을 연구한 것으로 본고의 논점인 비교문학과는 차이가 있다.

타자형상에 관한 연구, 즉 ‘비교문학 형상학’을 정립시켰다. 기존의 비교문학 이론이 두 민족문학을 대상으로 영향과 수용이라는 수직적 관계를 밝히거나 유사한 주제에 대해서 수평적 입장에서 비교한 것이라면, 비교문학 형상학에서는 한 민족 문학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한국문학과 동북문학에 투영된 상대방 타자 형상은 동 시대에 만주라는 하나의 공간을 배경으로 두 민족이 서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기존 비교문학 형상학 이론과는 차이가 있다.

또 하나 기존의 이론과의 차별성은 비교문학 형상학에는 상대방 형상에 대해 수직적 시각에서 보기 때문에 ‘나’와 관계하는 ‘그’가 동경해야 할 대상인가(유토피아), 아니면 ‘그’ 보다 ‘내’가 우월한 존재인가(이데올로기)로 양분하고 있지만, 이 시기 한국과 동북에는 이 두 가지 시각이외에 ‘나’와 ‘그’가 동질감을 갖는 동반자적, 혹은 ‘一者的 관계’도 보인다. 이는 두 지역이 모두 공동의 적에 대해 함께 손잡고 맞서야 한다는 연대의식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를 굳이 비교문학 이론에 보조를 맞춰 용어화한다면 철학적 개념을 빌어 ‘동일성(아이덴티티)’이라고 부르고 싶다. 기존 비교문학 형상학이론이 J.샤르트르나 I.레비나스의 타자인식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면 본고에서 제시한 이론은 유대계 독일 철학자 M.부버의 의견과 궤도를 같이 한다. J.샤르트르의 경우 자아와 타자관계를 서로 배척하는 상극의 관계로 보았으며,<sup>19)</sup> I.레비나스는 ‘나’보다 못한 억압받는 ‘그’, 혹은 ‘나’보다 훌륭한 ‘그’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출발하였다.<sup>20)</sup> 반면 M.부버는 만남과 대화의 체험을 통한 인격적 관계의 ‘나와 너’와 경험을 통해 인식한 ‘나와 그’로 구분하였다.<sup>21)</sup>

그러나 한국과 동북문학에 나타난 상대방 형상에는 차이가 있다. 한국문학의 경우 대부분 만주공간이 한반도에 비해 살기 좋다는 ‘유토피아’적 시

19) 변광배, 2004, 『장 폴 샤르트르 시선과 타자』, 살림.

20) 엠마누엘 레비나스 저, 강영안 역, 1996, 『시간과 타자』, 문예출판사.

21) 마르틴 부버 지음, 표계명 옮김, 1998, 『나와 너』, 문예출판사.

각과 좁고 낮은 공간에서 기득권인 중국인 지주에 시달려야 하기 때문에 역시 내 땅이 좋다는 ‘이데올로기’적 시각이 주류인 반면, 동북문학의 경우 이 두 가지 시각이외에 조선인 항일전사에 대해서는 반제국주의의 의미에서, 노동자와 농민에 대해서는 반봉건주의 시각에서 동질성(아이덴티티)도 볼 수 있다.

#### 4. 저항의 다양성

일제강점이라는 공통분모 속에서 생산된 한반도와 중국동북의 문학의 비교에서 두 번째로 고찰하고자 하는 것은 원래 자신의 고국, 고향에서 창작 활동을 유지한 ‘남은 자의 문학’이다. 일찍이 중국현대작가 傅雷가 말한 바와 같이 문학이란 태평성세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망국의 시대에도 있으며, 또한 외세의 탄압통치하에서도 창작되었다. 물론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창작환경이 열악한 것은 외세의 통치를 받을 때일 것이다. 이때의 문인들의 태도는 전술한 바와 같이 외세에 대한 저항, 혹은 협력적 관계를 맺거나, 아니면 염세주의나 유미주의로서 순수문예를 지향하거나 아예 절필한다. 본고에서는 저항이라는 모티브를 중심으로 두 지역 식민지 문학의 특징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한반도를 시작으로 동아시아지역으로 패권주의를 확대한 일제는 침략전쟁의 발판이 된 한국과 만주지역에 대한 사상 통제를 점차 강화해 갔다. 한국의 경우 프로문학 단체의 해체, 출판법에 의한 검열제도, 그리고 일본어 강요에 의한 조선어 말살 정책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 문화계에 대한 탄압은 엄격했다.<sup>22)</sup> 이른바 ‘오족협화’를 구호로 내세운 ‘만주국’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중국어로의 글쓰기가 허용이 되었지만 당시의 통계를 보면, 만주국 건립 초기인 1932년 3월부터 7월 사이에 수거 소각된 서적이 650만권이

22) 한국에서의 시행된 일제의 사상탄압에 대해서는 임종국, 『일제하의 사상탄압』 참조.

나 되고, 1935년부터 1938년까지 4년간 발행정지당한 신문이 7440장, 일반 서적은 500여 종에 달했다.<sup>23)</sup> 또한 태평양전쟁 시작과 함께 『藝文指導要綱』을 반포, 건국이념 및 대동아정신에 입각하여 창작하도록 강요하였다.<sup>24)</sup>

이러한 식민주의 문화정책은 남아 있는 자들에 대해서 자기검열 등을 요구하면서 창작의 자유를 위축시켰으나, 변형이 있었을 뿐 저항의지는 중단된 것은 아니다. 일제하 저항문학은 다양하게 표상되었다. 첫째, 침략초기에는 자신들의 울분과 민중들에게 저항의식을 고취시키고자 창작하였는데, 이때는 외세의 문화정책이 공고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표가 가능했다. 한국의 경우 구한말의 지식들의 시문이 그러했다. 신채호의 경우는 ‘신소설’에 대해서 저항의식의 유무로서 새로운 시대정신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별하는 척도로 삼았다. 20년대에 들어서 조명희의 경우 단편소설 『낙동강』(1927)을 통하여 적극적인 항일운동을 고취시키자 하였으나, 대부분 일제의 출판검열에 의해서 복자로 처리되었다. 동북의 경우 만주사변 발발 직후부터 만주국 건국초기에는 직접적인 저항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볼 수 있는데, 蕭紅과 蕭軍의 작품집 『跋涉』의 경우 상당부분 新京(지금의 長春)에서 간행된 『大同報』를 통해 발표된 작품을 정리한 것이다. 1933년 역시 같은 신문에 발표된 李文光의 『路』은 동북의 토비들이 만주사변이후 항일연군에 투항하여 활동하는 내용을 그리고 있다.

둘째, 문화정책이 엄밀해진 이후로는 직접적으로 저항의식을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 간접적 저항방식은 저항문학의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그 유형도 다양하다. 예를 들어 역사재제 소설은 역사적 상황에 대한 작가의 의식을 표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작가가 생활하고 있는 당시의 정황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23) 孫邦 主編, 1993, 『偽滿文化』, 吉林人民出版社, 10쪽.

24) 1941년 3월 23일 만주국 홍보처에서 발표한 ‘藝文指導要綱’에서는 만주국의 문학예술은 일본문예를 기본 축으로 ‘八紘一宇’라는 건국정신을 실현해야 하며, 그 목적은 국가기초를 튼튼히 하고 동아 신질서 건설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藝文指導要綱』 전문에 대해서는 최정옥, 2007, 「만주국문학의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참조.

하다. 이순신 장군의 활약을 묘사한 이광수의 『우리들의 영웅』은 독자의 저항정신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였다. 또한 당시 일제와 결탁한 지주나 매관 자본가에 대한 비판, 일제통치하의 어두운 현실 비판 등도 이러한 간접적 저항에 속한다. 문학 비평가들은 최서해의 대표작 『탈출기』에 대해 학계에서는 대부분 경향문학으로 평가하지만 주인공이 고국을 떠나 만주로 간 이유는 무엇보다 일제의 통치하의 조국이 더욱 궁핍해졌기 때문이다.

동북문학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만주국 초기 반봉건적 계급의식이 농후한 문학을 창작한 疑遲는 『鄉仇』, 『山丁花』 등을 통하여 봉건적 경제 질서와 노동력의 착취 등을 묘사하였으나 그 내용을 보면 역시 일제하 피폐해진 농촌현실이 잘 드러나 있다. 이는 같은 문학사조라 하더라도 정치체제와 사회현실에 따라 실천적 측면에서는 나름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동북아시아에서 프로문학의 전개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전개되었으나 비점령지인 산해관 이남의 중국이나 일본열도와는 달리 일제하 한반도와 만주의 경우는 반봉건인 동시에 반제국주의 사상이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 5. 디아스포라와 노스텔지아

일제의 탄압이 극심했던 1940년부터 해방 전까지 민족 언어의 사용이 금지되면서 한반도는 문화의 암흑기로 접어든다. 그러나 만주에서만은 한글사용이 허용되었기 때문에 적지 않은 한글문학이 창작되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양호 교수는 이 시기 우리 문학사는 간도 이민문학을 중심으로 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25)</sup> 외세의 침략시기에 문인들이 선택한 또 하나의 방식은 그 외세의 탄압과 통치를 피해 상대적으로 창작의 자유가 있는 다른 지방을 선택하는 것이다. 한국작가의 경우 주로 이동거리가 가까운 만주지역으로 옮

25) 오양호, 1988, 『한국문학과 간도』, 문예출판사.

졌으며, 동북의 경우 해외보다는 산해관 이남의 관내에서 활동하였다.

이러한 망명지의 차이는 두 지역 문학경향이 차이성을 갖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이른바 재만 한인 문학(혹은 재만 조선인문학)이라 불리는 만주에서의 활동은 첫째 언어와 문화 환경이 다른 타국이라는 특징이 있고, 둘째 만주지역 역시 만주사변이후 일제의 통제 하에 있었기 때문에 활동의 운신 역시 상대적일뿐 완전한 자유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은 강경애의 활동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만주지역의 한글신문이나 동인지를 활용할 수 있으며, 동시에 국내에도 발표할 수 있다는 나름의 장점도 있다. 이와는 반대로, ‘동북작가군’으로 이름 지어진 동북작가의 경우 중국이라는 같은 언어적, 문화적 환경에서 활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신 등과 같은 관내의 주류작가들의 지지와 격려 속에서 보다 확대된 발표공간 속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관동시기 보다도 뛰어난 작품을 발표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계속된 일제의 대륙침략으로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창작공간을 옮겨 다녀야 했으나 재만 문인과는 다르게 창작의 자유에서 제약을 받지 않았으며, 고향인 동북에 작품을 발표할 필요도 없었다. 이와 같이 한국과 동북의 작가들은 성립 과정이나 활동지역의 특징은 달랐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고향, 혹은 고국에 대한 그리움과 애정, 그리고 고향을 짓밟은 일제에 대한 저항정신은 공통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고향 떠난 작가들의 작품에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특징은 당연히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다. 동북출신으로 상징주의 시인으로 유명한 穆木天은 ‘타지로 유랑한 작가들은 모두 고향에 대해 마음 속 깊이 각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였다.<sup>26)</sup> 사람은 누구나 수구지심을 갖고 있다고 한다. 특히 적의 침략으로 어쩔 수없이 고향을 떠난 것이라면 고향에 대한 애정과 향수가 더욱 각별할 것이다. 이러한 고향에 대한 애정은 자신이 살았던 토지와 산하에 대한 애정과 함께 고향사람들에 대한 애정도 함께 있다. 『科尒沁旗草原』으로 유명한 端木蕻良은 ‘토지는 나의 어머니이며, 나는 토지의 가족

26) 『穆木天詩文集』, 時代文藝出版社, 66쪽.

이다. 내가 쓰는 모든 활동은 토지에 관한 것이다'라고 할 정도에 고향에 대한 강한 애착을 보여준다.<sup>27)</sup>

그러나 이들 작가들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나 찬양만은 아니다. 그 애정에는 고향에 대한 깊은 이해와 비판도 포함되어 있다. 흑룡강성 출신으로 30년대 대표적 여류작가 중 하나인 蕭紅은 자신의 고향을 묘사한 『呼蘭河傳』에서 봉건적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고향사람들을 계몽주의적 입장에서 비판하고 있다. 만주에서 창작하면서 동아일보에 투고한 강경에는 그의 대표작 『인간문제』를 통하여 봉건적 관습에 젖어있는 고향사람들을 비판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러한 병폐에서 벗어나 각성된 인간으로 살 수 있는지를 잘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여성의 시각에서 고향에 대한 비판을 하더라도 동북의 샤오홍의 경우 창작이 자유로운 관내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고향에 대한 비판과 함께 직접적으로 강렬한 항일의식을 표현할 있었지만, 강경애의 경우 일제와 결탁한 지주와 매관 자본가와의 투쟁을 그림으로써 간접적으로 저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경우는 30년대 대표적 농민소설이라고 평가받는 이기영의 『고향』을 통해서도 뚜렷하게 드러나 있다.

지금까지 두 지역에서 발생한 ‘떠난 자의 문학’에 대하여 한국은 ‘재민문학’을 중심으로, 동북은 ‘동북작가군’을 중심으로 차별성과 동질성을 고찰하였다. 중국현대문학사에서 세 번째 시기의 주요사조가 항전문학이라고 한다면 동북작가군의 의미는 자못 크다. 그러나 현재까지 출판된 중국현대문학사를 보면 주로 항전문학의 시기를 노구교사건이 발발한 1937년부터 해방까지로 잡고 있기 때문에 1931년 이후에 발생한 동북작가군에 대해서는 서술이 적은 것이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중국현대문학사에서 세 번째 시기에 대한 기술은 항전문학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동북작가군의 항일문학 발표는 37년 이전에 이미 활발한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모순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그러나 몇몇 문학사나 사조를 중심으로 기술

27) 『端木蕻良文集2』 『大地的海後記』, 北京出版社, 205쪽.

된 문학론을 보면 동북작가군에 대해서 항전문학의 ‘선봉론’, 혹은 ‘기수론’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고향을 등지고 타지에서 활동을 한 ‘떠난 자’의 문학이라는 공통성이 있으며, 작가의 정신사적으로 본다면 중국에서는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北島, 高行健 등과 같은 당대의 망명작가와도 그 궤를 같이 하기 때문에 ‘한국적’ 의미에서의 연구가치가 크다고 하겠다.

## 6. 마무리 글

한국근대문학의 전개는 일제강점과 불가분의 관계 속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한국적 시각에서 한중 두 나라의 문학관계 고찰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은 한중문학 비교연구에 새로운 시각과 지평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고에서는 일제의 식민주의 문화정책에 공동으로 노출된 한반도와 중국동북의 상호성에 대해 살펴본 후, 두 지역 문학에 대해서 비교문학적 측면에서 공통점을 탐색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먼저, 두 지역 문학의 만남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 경우 일제의 통제정책과 언어의 상이성으로 직접적 만남이 적었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따라서 본문에서는 한 지역에서 창작된 작품에 나타난 상대방 형상을 위주로 고찰하였다. 여기서 사용한 이론은 비교문학 형상학인데, 한국과 동북의 경우에는 이론에서 말하는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적 시각이외에 아이덴티티(동질성)적 시각도 나타났다. 이는 일제라는 공동의 적에 연합하여 저항해야 한다는 동반자적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은 앞으로 발전적 한중관계를 유지하는데 중요할 뿐만 아니라 동북공정 등으로 신중화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 중국인들에게 다시금 기억시켜주어야 할 역사적 사실이다.

본고에는 또한 일제 침략을 당한 두 지역에서는 ‘남은 자’에 의한 식민지 문학에 관해서 고찰하였다. 일제의 강압적인 문화정책이 시행되었으나 두

지역 모두 외세에 맞서 저항문학이 전개되었다. 이는 시기적으로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강점초기에는 직접적 저항이 주류를 이룬 반면, 탄압이 강화된 이후에는 사회의 어두운 면을 현실주의 수법으로 그림으로써 일제 통치의 잔혹상을 두각 시키거나 풍자나 은유적 수법을 사용하는 등 주로 간접적으로 저항정신을 표현하였다. 이와 동시에 민족말로에 비판한 문인들은 퇴폐주의 경향을 나타냈고, 시대상황에 합류하여 친일문학의 길을 걷기도 하였다. 그러나 광복이후 한중 양국의 정치사가 상이하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평가도 시대적 환경에 따라 변하였다.

본문에서 세 번째로 비교한 것은 이른바 ‘떠난 자’들의 문학이다. 그러나 두 지역 ‘떠난 자’의 문학에 대해서는 명칭이나 머물러 활동한 곳, 그리고 문학내용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먼저 한국문학의 경우 만주에서 활동한 작가가 대부분인데, 그들의 경우 구한말의 지식인에 대해서는 망명이란 단어를 거리낌 없이 사용할 수는 있어도 만주국 건국이후에 만주로 간 문인들에 대해서는 망명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는 반론의 여지가 있다.<sup>28)</sup> 반면 동북작가의 경우는 대상지역이 언어적 문화적 환경이 같은 관내였으며, ‘망명’보다는 유랑과 망명의 합성어인 ‘流亡’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망명과 유랑, 이민의 경계가 불분명한 우리도 새로운 용어 창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두 지역 ‘떠난 자’의 문학에서 공통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걱정, 그리고 여전히 봉건주의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고향사람들에 대한 애정 어린 비판이다.

본고는 거시적 관점에서 일제 강점기 한국과 중국 동북의 문학적 상관성에 대해 고찰한 논문이다. 따라서 문학 작품이나 작가에 대한 개별적 항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지 못한 한계를 안고 있다. 앞으로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이와 더불어 외연을 확대하여 한반도와 만주의 문학관계 뿐만 아니라 화북, 화남, 대만, 홍콩 등 동북아 지역과 동남

28) 김윤식, 앞의 책, 한석정·노기식 편, 앞의 책 중 김재용, 「한철야의 『대륙』과 만주인식」 등 참조.

아의 일부 국가까지도 포함한 일제 강점을 경험한 동아시아 식민주의 문학 연구의 종합적 고찰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일제 강점에 노출된 각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높은 연구 성과를 거두었다. 한국의 경우 ‘일제 강점기의 문학 연구’, 혹은 ‘일제말의 한국문학 연구’ 등 일제 통치는 한국근대연구에서 절대적인 시대적 배경이다. 중국의 경우는 함락된 시기에 따라 식민주의가 문학에 침투된 정도 또한 상이하다. 중국에서는 일제 강점기 문학에 대해 ‘윤함구 문학’(淪陷區文學), 혹은 ‘윤함시기 문학’으로 부르고 있으며, 심양, 장춘, 하얼빈 등 동북지방과 베이징, 상하이, 그리고 대만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으나, 한국과 중국의 식민지 문학이나 동아시아 전체의 식민지문학 연구는 아직 초보적 단계에 있다. 따라서 이 방면에 대한 미시적, 거시적 연구는 계속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고구려연구재단 편, 2004, 『만주-그 땅, 사람 그리고 역사』, 고구려연구재단.
- 김시준, 1999, 『한반도와 중국동북3성의 역사문화』, 서울대학교출판사.
- 김윤식, 1986, 『안수길 연구』, 정음사.
- 김장선, 2004, 『위만주국시기 조선인 문학과 중국인 문학의 비교연구』, 역락.
- 김창호, 「중국의 만주문학 기억, 그리고 전망」 『만주연구』제2집.
- 김호웅, 1998, 『재만조선인문학연구』, 국학자료원.
- 마르틴 부버 지음, 표재명 옮김, 1998, 『나와 너』, 문예출판사.
- 박재우, 1996, 「中國現代韓人題材小說發展趨勢考(1917~1949)」 『외국문학연구』제3집.
- \_\_\_\_\_, 1996. 12, 「中國現代小說속의 韓人形象과 社會文化狀況考(1917~1949)」 『중국학연구』.
- \_\_\_\_\_, 1996. 12, 「中國現代韓人題材小說試探(1917~1949)」 『중국연구』.
- 박지향, 2003, 『제국주의』, 서울대학교.
- 변광배, 2004, 『장 폴 사르트르 시선과 타자』, 살림.
- 소재영 편, 1989, 『만주유랑 40년』, 조선일보출판사.
- 엠미누엘 레비나스 지, 강영안 역, 1996, 『시간과 타자』, 문예출판사.
- 오양호, 1988, 『한국문학과 간도』, 문예출판사.
- \_\_\_\_\_, 1996, 『일제 강점기 만주조선인 문학 연구』, 문예출판사.
- 임종국, 1966, 『친일문학론』, 평화출판사.
- \_\_\_\_\_, 1986, 『일제하의 사상탄압』, 평화출판사.
- 최정옥, 2007, 「만주국문학의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표언복, 2004, 『해방전 중국 유이민소설 연구』, 한국문화사.
- 한석정·노기식 편, 2008, 『만주, 동아시아 융합의 공간』, 소명출판.
- 端木蕻良, 1998, 『端木蕻良文集2』, 北京出版社.
- 東北現代文學史編寫組, 1989, 『東北現代文學史』, 瀋陽出版社.
- 孟華 主編, 2001, 『比較文學形象學』, 北京大學出版社.
- 穆木天, 1985, 『穆木天詩文集』, 時代文藝出版社.
- 孫景堯 等 主編, 1997, 『比較文學』, 高等教育出版社.
- 孫邦 主編, 1993, 『偽滿文化』, 吉林人民出版社.
- 遼寧省社會科學院文學研究所, 1982, 『東北現代文學研究』, 第7輯.
- 遼寧省社會科學院文學研究所, 1984, 『東北現代文學研究』, 第9輯.
- 遼寧省與黑龍江省社會科學院文學研究所, 1980, 『東北現代文學史料』, 第2輯.
- 張毓茂 主編, 1996, 『東北現代文學大系』, 瀋陽出版社.

錢理群 主編, 2002, 『中國淪陷區文學大系』, 廣西教育出版社.

馮爲群, 李春燕, 1991, 『東北淪陷時期文學新論』, 吉林大學出版社.

逢增玉, 1995, 『黑土地文化與東北作家群』, 湖南教育出版社.

■ Abstract ■

## A Study on the Correlativity of the Literature of Korea and North-East China in Japanese Occupation

Kim, Chang – Ho

After Japanese occupation at the end of the nineteenth century, the literature of Korea and China (especially in the North-East) were immersed in similar types of historical and linguistic context. The main event of this period is the birth of colonial and immigrant literature. This paper employs the methods of historical typology and imagologie to these two types of literature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The body of this paper has three sections :

In the first section, I compare the images of Korea in North-East Chinese literature and the image of North-East China in Korean literature. Here I analyze images of ‘the Other’ in the modern literatures of both North-East China and Korea. There were the following changes in the images of Korean in North-East China after September 18, 1931, the beginning of the war in Manchuria.

In the second section, I compare the colonial literatures of the two areas. I introduce Japan’s cultural policy and its effects, then narrate the primary characteristics of colonial literature. In this second section, there are two parts. First, I introduce the various narrative methods of the mentality of the resistance. There are direct and indirect methods of description. The literatures of the direct method mainly appeared at the beginning of the Japanese Occupation before it carried out clear cultural policies in the two areas. Second, I introduce the rise and fall of the decadent literature. It appeared as a result of the indifference and insincerity of the time, and expressed despair, hopelessness and the ‘End of the People.’ However, it did not last long.

The last section of the paper I compare the immigrants literatures of the two areas using historical typology and imagologie. I analyze the meaning of immigrant literature. The basic condition of immigrant literature is a confused social atmosphere, and the main characteristic is an interest in the future of the nation and a recognition of the individual's fate. Based on this analysis, I summarize the characteristics of immigrant literature.